

슬봉문답

사례집



자원봉사 궁금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원봉사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와



활동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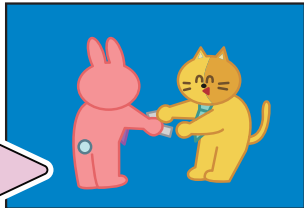
교육활동지
사용용종교

자원봉사활동사례집

슬봉문답 사례집

01. 다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02. 화제의 질문과 답변만 모았어요!
03. 나만의 내공을 담아 답변을 남겨주세요!
04. Keyword 모아보기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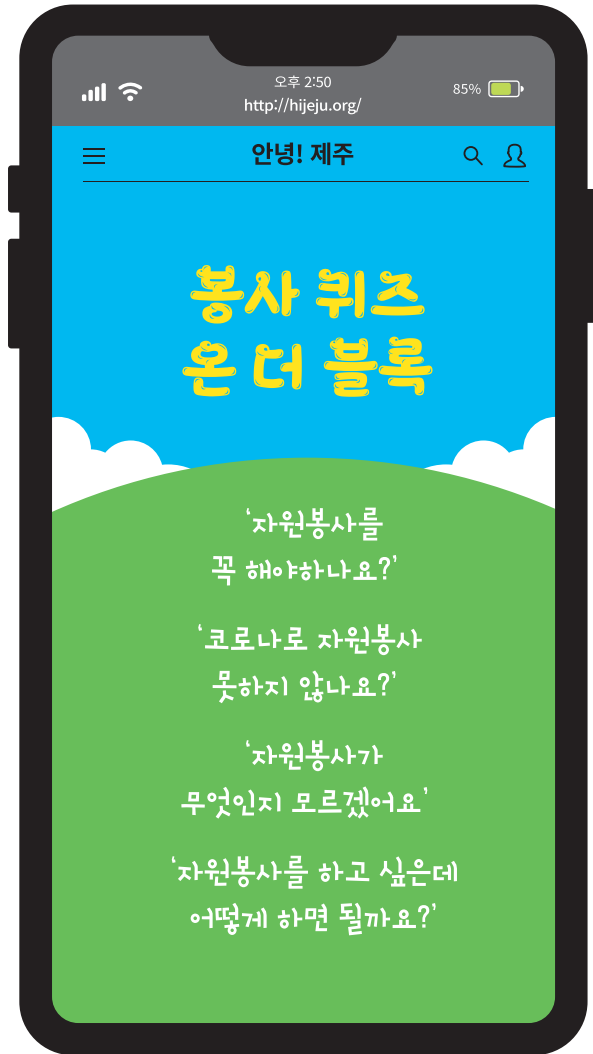


답변해 보는 교육활동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사례집 + 교육활동지

슬봉문답

—
슬기로운 봉사 생활을 위한
문고 답하기



자원봉사 활동사례집
+ 교육활동지

슬봉문답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안녕! 제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었던 활동 사례와 자원봉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질문에 나의 생각을 답변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자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주시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가 만나 쌓아온 1,739개의 자원봉사 사례 869개의 질문과 434개의 답변을 담아보았습니다. 질문하는 당신, 답변하는 당신, 모두가 자원봉사자이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보다 안전한 자원봉사 현장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 제주
봉사퀴즈온더블록 바로가기



STORY 01

다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1부 봉사는 서프라이즈!

2부 슬기로운 봉사 생활

06
/
37

STORY 02

화제의 질문과 답변만 모았어요!

안녕! 제주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질문과 답변 모먼트를 소개합니다.

61

STORY 03

나만의 내공을 담아 답변을

남겨주세요! 답변 1개 당 1건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82

Keyword 모아보기

95

#

웃픈봉사

슬봉
1부



STORY

01

경험한 사람은 눈물 나지만
구경하는 사람은
웃음을 참기 힘든
봉사 해프닝



웃픈봉사 is ...

웃기긴 한데
웃을 수만은 없는
자원봉사 이야기
표정 관리 주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1부

봉사는 서프라이즈!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자원 봉사자는 5명이 오고, 아이는 1명이 와서 5명에서 1명에게 봉사를 해주는 웃픈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함○○
(10대)



김○○
(10대)

공원을 정화하기 위한 봉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공원이 깨끗해서 별로 청소할 것이 없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
(20대)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봉사활동인 줍깅을 한 적이 있는데 쓰레기를 너무 많이 담았던 나머지 쓰레기봉투가 터져 신발과 바지가 젖었던 웃픈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엔 봉투를 2겹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재미봉사

슬봉

1부



혼자 알기는

아까운

재미있는 봉사 사연



재미봉사 is ...

무엇 재미난 일 없냐고요?

깨알 같은 봉사의 재미에

빠져 보시렵니까?



#청소거리 없음 #쓰레기봉투 터짐



#

지역 공설운동장 정화 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당일 소집 시간에 맞춰 공설운동장에 갔는데, 운동장에 계획된 축구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 경기를 구경하며 대기한 경험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과 축구팀을 응원하며 경기를 즐겼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축구 경기를 구경했더니 다들 신이 나서 정화 활동을 할 때도 다같이 좋은 분위기로 즐겁게 청소했습니다. 지루할 수 있는 청소 봉사였는데 즐거웠어요.



정○○
(20대)

장애인시설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깨너머로만 보았던 김장 실력이지만 김치 속을 가득가득 채우며 비벼주며 한 포기 한 포기 쌓여갈 때 마다 뿌듯했습니다.



채○○
(50대)



윤○○
(20대)

중학생 때 요양원 봉사를 갔었는데, 그중 할아버지 한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바둑을 둔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의 노인분들이 어려웠지만, 이 일을 계기로 친해져서 봉사하는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요양원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10대)

3년 전에 친구와 함께 노인정에 가서 할머니들께 안마를 해드리고 선물도 전해드리면서 봉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 대면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약간 꺼려지는 요즘이어서, 그때 했던 봉사활동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축구경기구경 #할아버지와 바둑



#쌓여가는 김치포기 #할머니 안마



#

아찔봉사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찔했던 현장 이야기



아찔봉사 is ...

그때는 식은땀이 났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참 재밌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변○○
(20대)

예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어느 할머니분께 식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 거기서 일하고 계셨던 남자 직원에게 여쭙보니 밥을 떠서 반찬을 그 위에 올려서 드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만 듣고 저는 그대로 드렸지만 그래도 안 드셨었는데 갑자기 옆에 계신 다른 자원봉사자 분이 놀라서 오시더니 밥을 국에 말아서 드려야 할머니들이 드시고 소화하실 수 있다고 타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
(10대)

예전에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함께 레크레이션도 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크레이션과 식사 도중에 친근함 때문인지 정이 그리워서인지 자꾸 껴안으려고 하시고 귀여워 귀여워 하시며 얼굴을 계속 만지셨는데 당황스럽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장애인 복지관 봉사는 조금 꺼려졌던 것 같습니다...



#얼굴만저당항



고등학교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캠핑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해 갔는데 상품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꽤 진지하게 다투서 어떻게 다툼을 말릴까 고민했는데 과자와 사탕을 조금씩 나눠 주니깐 금방 다툼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고자 준비했던 선물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지만 아이들의 친진난만한 미소를 보면서 봉사의 뿌듯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김○○
(20대)

아이들에게 미술활동을 지도하는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욕심이 커서인지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며 그 자리에서 물어버려 난감했던 경험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게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마음까지 헤아려줘야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40대)



정○○
(10대)

저는 대면 봉사를 많이 다녔는데 플로깅 대면 봉사 에서 플로깅 중에 길을 잃어버려서 정말 당황했었습니다.



신○○
(20대)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의 물건을 망가뜨려 아이가 속상해 운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계속 달래줬지만 울음을 멈추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2시간 정도 그 아이를 달래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이○○
(20대)

비대면 멘토링 교육봉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대면이다 보니 zoom, 구름미 등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전자기기가 필요한데, 첫 만남 때 멘티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모두 동작하지 않아 저 혼자만 말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웃긴 일이기도 한데 멘티가 채팅으로 너무 당황하는 게 보여서 저도 함께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투는 아이들 말림 #우는아이 달래줌



#마음 헤아려줌 #플로깅하다 길잃음



#

은밀한봉사



봉사활동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하는
내밀한 현장의 이야기



은밀한봉사 is ...

봉사활동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
(20대)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코로나로 인해 입구에서 체온 측정하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QR코드 하는 법, QR코드가 안 되면 수기로 쓰는 방식을 안내해주었는데요. 이때 온도 체크하는 게 귀찮거나, 넘어갈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도체크를 실시하시는 걸 보고 뿌듯했습니다. 체온 측정기가 높이가 좀 높았는데 어린 친구들도 체온을 측정하려고 막 점프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ㅋㅋ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 휴대용 체온기로 측정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대단하단 걸 느꼈습니다.



김○○
(30대)

대학교 때 교내 청소노동자분들을 위한 한글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했었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단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참여했던 봉사활동인데, 대학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시는 청소노동자분들이 짬을 내어 교육을 받으러 오시고, 나날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취업하면 이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기증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 생각나 찾아보니 없어진 지 오래되었더라고요. 아쉽고 또 그리웠습니다.



#시민의식 #한글교육봉사



안녕하세요. 저는 반찬 만들기 자원봉사 참여 경험을 공유해 볼게요. 저는 직장인이라서 평소에 가족들을 위한 반찬도 만들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기부하는 형태의 봉사활동을 참여했습니다. 첫 봉사의 반찬이 열무김치 담그기였는데…….

난생처음 김치를 담갔어요. 재료 손질부터 마무리까지 온라인으로 강사님의 안내에 따라했더니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센터에 김치통을 기부하였는데 제 열무김치를 드시는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이○○
(40대)

학교를 자퇴한 친구를 복지시설에서 가르치는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학업에 의지가 없어서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점점 그 친구와 가까워지면서 학업에 흥미도 가지게 만들어 친구가 검정고시까지 합격한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오○○
(20대)

직장생활을 하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도록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쭈욱 헌혈로만 채우고 있었으나 찾아보니 다양한 활동이 있어 새로운 활동들을 해보고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해 팝업북, 필통 등을 만들었는데 이런 물건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
(20대)

사회복지 실습을 하면서 이동 목욕 차량을 따라 나선 적이 있습니다. 씻기는 분들도 씻는 분들도 서로에게 신뢰가 없었다면 몸을 내맡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추운 날이라 더 어려웠거든요.



김○○
(50대)



#반찬기부 #이동목욕보조



#검정고시 합격 #아동을 위한 팝업북



#

봉사나무

슬봉
1부



자원봉사자가
한 그루의 나무라면
기쁨과 슬픔을 거름 삼아
쑥쑥 자라남



봉사나무 is ...

자원봉사자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이야기들이 열매처럼 매달려 있고,
나무는 쑥쑥 자라납니다.



최○○
(20대)

도서관에서 국가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도서관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다가 봉사시간을 채우려 또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봉사활동에 귀찮아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점차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일한다는 책임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돕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또한 매우 보람차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이○○
(20대)

저는 유치원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지만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거지나, 간식준비같은 것 위주로 하다가 점점 아이들과 말도 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동화되면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보람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아직도 잊지 못하며 시간이 되면 꼭 다시 자원봉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대방을 돕는 마음가짐 #아이들과 점점 친해짐 #

저는 고등학교 때 요양원으로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웃으면서 박수쳐주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었습니다. 또한, 식사보조와 청소 등도 함께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
(20대)손○○
(20대)

고등학생 때 초등학교생의 직업 체험을 돕는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도움으로 즐거움을 얻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봉사를 하면서 나의 작은 도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윤○○
(20대)

유기견 돌보는 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지거나 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만지지 않으면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용기 내서 만지고 하니깐 점점 나도 모르는 편견 등이 걷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유○○
(10대)

고등학교 생활 중 노인복지센터와 아동 돌봄센터에 봉사활동을 가곤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든 일도 물론 있었지만 다들 저를 반기며 기특하게 봐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루를 보내다 보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어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박○○
(20대)

봉사에는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긴장감을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일에는 두려움이 큼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고 싶은 봉사가 있어도 시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유치원 봉사, 요양원 봉사, 장애인 탁구 봉사, 빵만드는 봉사, 연탄봉사, 보육원 청소 봉사 등 여러 봉사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봉사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봉사를 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저를 보며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이 아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그리고 모두를 위해 다같이 성장해 가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람과 여러 봉사를 하며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래 불러드림 #용기내 유기견 만져봄



#기특한 나 #성장 #깨달음



#

반전봉사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순간



반전봉사 is ...

공은 둥글고, 세상도 둥굽니다.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뜻밖의 반전이 있습니다.



김○○
(40대)

회사에 입사해서 아동센터에 봉사 활동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가면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대하는 것보다 가면 청소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맡은 일은 다리가 불편한 아동과 산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휠체어에 아동을 태우고 방을 나서고 건물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곰 세 마리 노래도 불러주고 밖을 나가니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돼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방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고맙다며 안아주어서 너무나 보람을 느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동센터 #보람



#

김○○
(20대)

중학생 때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도 나고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손도 많이 가고 봉사 시간 인정에 비해 강도가 너무 힘들다 보니 안 가야겠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외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겠구나 싶어 매번 봉사활동을 가면 그 병원을 찾곤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금은 다시 봉사활동을 간다면 더 열심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늦지 않게 봉사활동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
(20대)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도와 주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가끔 길 가면서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상대하는 경험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간단한 포장 작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도와 포장을 했는데 의외로 그분들의 포장 실력이 꼼꼼하고 좋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대화가 가능할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약간의 대화가 통하는 분들도 있어서 많은 편견이 깨졌습니다.

윤○○
(20대)

고등학생 때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식하기도 하고,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손질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저는 양파랑 파를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손질하니까 점점 매워져서 눈가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이 통통 부은 채로 봉사를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눈이 매워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를 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김○○
(20대)

중학교 시절에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따라 처음 간 봉사활동이어서 요양원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나로서 매우 경계와 긴장을 하며 들어갔습니다.

매우 어두운 분위기에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긴장해 있었는데 노인분들은 내 예상과 정반대로 매우 밝고 힘차게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분은 일본에서 건너온 재일교포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특히 밝고 끊임없이 배우는 분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나도 저런 자세로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강도높음 #열심 #재료손질



#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

신○○
(10대)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6학년인 형을 위해 온 가족이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어른들을 위해 복지관에서 하는 도시락 배달이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불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비바람을 맞으며 네 식구가 카트에 도시락을 싣고 아파트 여기저기를 가 돌고, 아파트 현관문에 도시락을 걸어두고, 빈도시락을 받아오는 것이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집보다는 문이 열려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도 해서 집안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가족은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는 식사가 끝난 분들의 식탁을 닦았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도시락을 큰 설거지통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봉사가 끝났습니다. 나는 배가 고파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침밥도 먹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밥이 먹고 싶었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무척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서운했지만 놀이공원 가는 것처럼 즐거웠던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형을 따라 다녔던 봉사활동으로 나도 일찍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서는 이상하게 봉사활동이 하기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가 유행하고,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은 줄었지만 봉사활동의 트렌드가 바뀌어 참 좋습니다.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오래전 그때, 비바람 맞으면서 도시락 배달을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나의 정식 자원봉사활동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식사가 없어 서운함



#



#

#

뭔가.다른.봉사

#재난봉사

#해외봉사

#이색봉사



뭔가.다른.봉사 is ...

사람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미칩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곳,
바다 건너 또는 지구 반대편,
랜선 속에도 봉사가
별처럼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장○○
(30대)

몇 년 전 한국에 큰 태풍이 와서 농가들 피해가 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늦여름 태풍은 추석 출하를 바로 앞에 둔 배 농가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 무게를 잔뜩 끌어올린 '배'는 거센 바람에 더 취약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바닥에 널구러진 배들이 노랑게 발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상품성 좋은 큰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연히 농장주 얼굴은 좋지 않았고, 평생 농사 지으신 부모님 얼굴도 떠올라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낙과를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낙과도 배즙이나, 청을 만드는 곳에 수요가 있다고 하니 빠짐 없이 주우려 농장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일하던 사람이 허리를 반복해서 숙였다 폈다 하니 오후 되서는 온 몸이 빠근했습니다.

결국 봉사활동이 마무리 되고 창고 한편에 켜켜이 쌓인 낙과 상자를 보니 보람과 한편으론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착잡한 마음이지만 간단히 저녁이라도 먹으러 식당을 들렀는데, 마음과 다르게 몸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으니...입맛은 정직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태풍 낙과정리 #농가피해



#



최○○
(20대)

이번에 서울에 홍수 피해가 크게 났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하였고 저 역시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주로 장애물을 치우고 옮기는 역할을 했었는데, 다소 힘들기는 했지만, 제가 기여한 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가며 일할 수 있어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손○○
(30대)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휴학하고 호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CVA(Conservation Volunteers Australia)라는 환경 보호 단체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과 궁금증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넓은 자연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도 줍고 우거진 숲에 사람이 다닐수 있는 길을 만들면서 새삼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직 훼손되지 않은 자연에서 볼수 있는 동.식물들을 보며 다시 한번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실천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안 기름유출시 친구들과 참여했습니다.



이○○
(40대)



이○○
(30대)

저는 필리핀에 의료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의료인이 아니라 도우미로 간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종이접기, 풍선 만들어 주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데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즐거웠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참 뿌듯했습니다.



#홍수피해복구 #태안기름유출제거



#



#환경보호 #필리핀의료봉사



#

전OO
(20대)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시작한건 아니었던 헌혈인데
은장을 받고나서부터는 괜히 더 욕심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더 헌혈횟수를 늘렸는데 어쩌다보니 조혈모
세포 기증까지 하고 왔네요. 나중에 필요한 분이 나타
난다면 당연히 제공의사가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보
다도 회사에 3일이상 휴가를 쓰는 게 괜히 걱정됐었
는데 다행히 조혈모세포 기증의 경우에는 공문발송
도 해주신다고 해서 걱정을 덜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접수하시는 분께서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게 아닌지 물어보셨지만 이미 출가외인은 걱정 범위
에서 벗어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남편이 반대
하는 게 아니냐’고 물으시기에 ‘그 사람의 의견은 중
요치 않다’고 말했더니 뺏기지셨던 게 생각나네요. 모
든 사람에게 권한 손 없지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
위에서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다들 헬퍼스하
이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김OO
(20대)

이전에 학교 근처에 있는 한센병 환자분들을 위한 심
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이
라 한센병이라는 게 마냥 무섭고, 겉으로 보기에 는 나
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났었는데, 막상 봉사를
하면서 저희 할머니 같이 따스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
었고, 제 마음 속 편견을 없앨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최OO
(20대)

오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비대면 러닝 봉사활동
을 했습니다. 러닝을 통한 봉사활동은 처음이라 익숙
하지 않기도 했지만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이었습니
다. 이런 식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이슈에 대한 인
식을 높이는 것도 매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OO
(10대)

전에 조부모님들께 편지쓰는 봉사를 해본 적이 있
는데 편지를 쓰고 예쁘게 꾸민 걸 보니 뿌듯했습니
다. 그 편지를 읽으신 조부모님도 행복하셨으면 좋
겠네요.



#조혈모세포기증 #헬퍼스하이



#



#편견 없어짐 #재미·유익



#



이○○
(10대)

저는 지하철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봉사를 한 지하철역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많이 내리시는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그 지하철역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많은 짐을 들고 계신 분들도 버겁게 계단을 올라가시곤 하셨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지하철 봉사를 해서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한 성격이라 먼저 말을 거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분께 다가가서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라고 말씀 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괜찮다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했고 힘들게 올라가시는 분들을 보고 내가 짐 들고 올라가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덜 힘들게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여 더 봉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몸이 긴장하게 되고 모르는 것도 많아 어려운 것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
(20대)



#지하철 짐 들어드릴 #외국인 유학생 도움



#

STORY 01

다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2부
슬기로운 봉사 생활



#

봉사연대



혼자서는 어려웠을 일을
함께 하면서 달성한
나눔의 이야기



봉사연대 is ...

자원봉사는
최소 두 명 이상의 관계이므로
그 자체가 연대입니다.



김○○
(20대)

저는 봉사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경험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동아리에 속하게 되니 여러 봉사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요양원, 보육원, 공연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라면 꾸준히 하기도,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을 이어가기도 어려웠을 텐데 단체에 들어가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 더 직접적인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크지 않더라도 마음이 맞는 무리에 속해서 활동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0대)

수영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스마트폰 특강 참여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활용(SNS, 모바일 팩스, 카메라와 갤러리 고급기능, 앱 활용, 유튜브 활용 등)에 대한 보조 활동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참여하신 어르신들 모두 배우려는 열정과 의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 다 끝난 뒤에 어르신들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봉사동아리 #열정 #감사인사



#

슬생봉사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일상의 소소한
깨달음을 얻은 사례



슬생봉사 is ...

자원봉사는 스승이면서
스승이 아니기도 합니다.
슬기와 지혜를 가르쳐주지만
스스로 배우니까요.



김○○
(10대)

중2 시절 엄마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낯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들이 당시 치기 어린 저에게 너무나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원봉사자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주고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실 때 저는 구석에 박혀 청소를 하거나 누가 도움을 청하면 선불리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오디오 클럽2에서 처음 목욕 봉사활동을 해본 사람 처럼요.

그때는 그렇게 흐지부지 4시간이란 시간을 보냈지만 머리가 커지고 성인이 되니 그때의 제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봉사활동을 만회하기위해서라도 혹은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깨달은 지금으로서는 열심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민○○
(20대)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산책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요양원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함으로써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다가가기 어려움 #어르신들과 산책 #낯설



장애인 보호센터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제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봉사를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OO
(30대)



양OO
(30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천 주변에 쓰레기가 많아서 당황스러웠는데, 2시간 정도 쓰레기를 줍고 나니 큰 쓰레기봉투가 가득 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OO
(20대)

고등학생 시절에 도서관 봉사를 하는 중에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유치원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자격증 따려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껴 자격증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백OO
(20대)

길에 버려져있는 쓰레기들을 줍는 봉사를 한 적이 있다. 커다란 봉투에 가득 담아 오라고 했었는데 봉사를 하기 전에는 '이걸 언제 다 채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없어졌다. 도로에 정말 많은 쓰레기가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매우 슬펐다. 봉사를 하기 전에도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봉사를 한 뒤에 더욱 신경써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었던 것 같다.



유OO
(20대)

중학생 때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이 낯설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어르신분들이 고마워하시고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하니 너무 뿌듯했다.



#열심 #봉사는 거창한 것 아님



#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고마워하는 어르신



#

#

진로봉사

봉사가 진로와
연결되는 지점



진로봉사 is ...

평생 진로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체험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김○○
(20대)

고등학생일 때 외국인분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해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어 교육만 해드렸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며 친해지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저까지 뿌듯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그분들과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는데 참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20대)

고등학교 시절 아우름이라는 동아리에서 교육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수학, 영어 등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착하고 잘 따라주어서 뿌듯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 중사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치는 일이 힘들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하는 일이라 부담도 되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면서 뿌듯하고 대견한 감정이 먼저 들어 앞으로도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교육봉사 #수학영어멘토링 #뿌듯



#

중학생 때 우체국으로 봉사 활동을 갔는데 몇 시간 동안 우편물 분류만 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끝났을 때에는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
(20대)

학창 시절에 보육원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이집 봉사도 간 적이 있었구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 비해서 봉사오는 분들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게 느껴져서 가끔 그곳 아이들과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김○○
(40대)



조○○
(20대)

저는 주변 종합복지관에서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시락 전달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눌러서 전달하고 응답이 없으면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던 중 한 집이 문을 두드려도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려던 찰나 지나가시던 이웃분이 문을 열어 주셨는데 할머니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천천히 기어서 오고 계시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동무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다른 도시락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열린 집으로 들어가 도시락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기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동기가 생겨서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 사회복지학과 3학년 대학생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
(10대)

중학생 때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옆에서 조금 이나마 도와드리고 같이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땀도 흘리며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
(20대)

생애 첫 봉사활동을 중학교 때 노인 데이케어센터에서 했습니다.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모두 잘해주시고 잘 따라주셔서 생애 첫 봉사활동이 좋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노인데이케어센터 여러 곳에서 봉사했습니다.



#우편물분류 #사회복지학과지원



#말동무 #노인데이케어센터



교육봉사, 봉사학교

슬봉
2부



자원봉사자가 알고 있는
노하우,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봉사 이야기
자원봉사를 통해
배우는 이야기



교육봉사, 봉사학교 is ...

지나고 보면 자원봉사만큼
좋은 학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도
자원봉사를 할 때였으니까요.

최근에 과학관 봉사를 가서 여러 활동을 설명해주었는데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옛날 생각도 나고 봉사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김○○
(10대)



이○○
(20대)

고등학생 시절 교육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기 봉사가 아니라 매주 꾸준히 하는 봉사였는데, 처음에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에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정한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재능기부로 인해 그 아이들이 좋은 학습 효과를 누린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20대)

교사를 꿈꾸는 저는 고등학교 때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지역문화센터에서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교육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기 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 뜻깊은 시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재능기부로 누군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컸습니다.



#재능기부 #즐거움 #성장



#



김○○
(30대)

멘토링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멘티 친구가 잘 따라 주지 않아 속상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나를 믿고 따라와 줘서 행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멘토링 날에는 정말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10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진행했는데, 수업이 미숙했음에도 학생인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김○○
(20대)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합니다. 우리에게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이 그들에게 큰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봉사활동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아쉬움 #그들에게 어려운 일



#

#

일상봉사

슬봉

2부



봉사가 특별하고
송고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잔잔한 이야기



일상봉사 is ...

자원봉사라는 게 특별하고
송고한 무엇이라기보다는,
사람들과 일상을 함께 보내는 일,
나의 일상을 조금
나누어주는 일이 아닐까요?

요양원에 가서 노인분들 말동무도 해드리고 도시락도 전달해주는 봉사활동을 하였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보람찬 하루를 보내며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 행복하였습니다.



이○○
(20대)



김○○
(20대)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어르신 주간보호 센터에서 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어르신들을 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직원들과 함께여서인지 생각보다 편안하게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르신들 식사도 배식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박○○
(20대)

독거노인 분에게 가서 말동무 및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매우 다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김○○
(50대)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시는분을 휠체어를 빌려서 병원까지 모시고 간적이 있습니다.



황○○
(10대)

노인정에 가서 내가 먼저 읽은 책의 간략한 스토리와 느낀 점을 발표하며 읽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은 쑥스러웠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손녀를 바라보는 듯한 따뜻한 눈빛을 보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더 크게 정성 어린 발음으로 읽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간단한 대화 속에서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비슷하게 다정하고 따뜻한게 대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에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
(20대)

요양병원에서 어르신과 색칠 공부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정해진 도안에 색연필로 알록달록 채우는 과정에서 여러 대화를 나누고 완성된 그림을 보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말동무 #함께 대화



#



#책 읽어드리는 봉사 #색칠공부



#

도서관에서 도서 정리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찾는 책의 위치를 나에게 물어보아서 당황했지만 찾아드렸던 기억이 있다.



이○○
(10대)



권○○
(30대)

대학교 시절 경로당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너무 친절히 해주셔서 감동 받았습니다.



이○○
(10대)

이전에 환자들을 위한 수세미를 직접 만든 적이 있습니다. 비록 초등학교 때였고 주변의 권유로 따라갔지만 자원봉사자들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막상 일을 하니 뿌듯했습니다. 수세미 받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

봉사의눈

슬봉

2부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목격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현실



봉사의눈 is ...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격자'입니다.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자원봉사자들의 눈이
본 것들에 주목해 보세요.



#책위치 찾아줌 #수세미 만들



복학하고 초등학생들이 있는 복지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아이들이 푼 학습지를 채점하는 일이었는데, 아이들이 아주 창의적이고 기발한 답들을 많이 적어놓아서 답안과 달라도 정답으로 표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답안과 다르면 틀렸다고 체크를 꼭 해주라고 하셔서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창의력을 잃어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김○○
(20대)

학창시절에 보육원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이집 봉사도 간 적이 있었구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 비해서 봉사오는 분들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게 느껴져서 가끔 그곳 아이들과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김○○
(40대)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쓰레기도 많지만,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쓰레기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인간들이 버린 비양심에 눈살이 찌푸러졌습니다.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의 양은 방대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최○○
(30대)

고등학교 때, 꽃동네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노인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소수의 직원분들이 많은 분들을 돌봐드리고 계셔서 안타까웠고, 그에 비해 제가 하루 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꽃동네와 같은 시설에 관심을 갖고, 봉사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20대)

도서관 봉사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똑부러진 아이들이 많아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혼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엑셀 책을 읽으면서 정리 정돈도 다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어른보다 더 성숙해 보이기도 해서 신기했었어요.

최○○
(10대)

#창의적인 아이들 #소수직원 #바쁨



#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해양쓰레기 심각성



#



김○○

얼마 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학습지도와 돌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학교에 다니는 형, 누나들을 따라 뛰어다니던 다섯 살 아이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래 친구가 없어 가장 나이 차이가 적은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9살 누나였습니다.

아이는 덩치가 한참 차이 나는 누나와 형들 사이에 끼어 놓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또한 저녁을 먹을 때 밥이 성인을 위한 식사가 준비되어 힘들게 먹고 있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많지만 인력이 매우 부족해 이러한 아이를 세심하게 돌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와 주긴 하지만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조○○
(20대)

봉사를 위해 사전에 열심히 하는 것에 인상적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실수하는 상황에서 자책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루 몇 시간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그 자책을 계속 생각하면서 더 힘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봉사할 때는 지역과 그 기관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흔히 시간 채우고 하게 됩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과 대상자의 특성에게 맞게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에구에구 남사스러워라' 편은 봉사자에게 이런 짜증을 내는 게 이해가 안 되어 인상 깊었습니다.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봉사하는 것도 아름다운 도전과 용기인데 자기의 시간을 내는 봉사자들에게 예의가 없고 짜증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인기관에서 봉사 중에 모르는 분들께 장기자랑을 하라고 해서 너무 힘들었고, 주변 지역민들이 강의를 하는 기관인데 더운 날씨에 힘들어서 넓은 강당을 청소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에 안 오냐고 뭐라 해서 기분도 조금 나빴습니다.

봉사자와 봉사기관에서는 서로 기분을 상하지 않고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이 봉사 일화를 오디오로 듣고 댓글을 남기고 들으면서 사회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봉사를 하면서 개인이 성장하다는 것을 동감했습니다. 제주방언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원 말인지 모르겠네요.



#인력부족 #세심하게 돌보지 못함



#



#봉사자 봉사기관간의 예의필요



#



전○○
(10대)

대학교 시절 사회복지기관으로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보면서 안부도 전해드리고 말동무를 해드렸던 봉사가 기억에 남아있네요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하며 즐거워하며 뜻깊은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봉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대학 졸업 후 유기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애쓰는 관리자 분들과 사람의 손길에 굶주린 강아지들의 얼굴이 기억에 남네요. 후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금 방문하여 강아지들을 돌볼 생각입니다.



신○○
(10대)

줍기 활동을 하면서 근처 공원들의 쓰레기를 주워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있었으며, 특히나 병과 같은 큰 쓰레기들이 많아서 놀랐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의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유기견센터 #애쓰는 관리자 #굶주린 강아지



#

STORY

02

화제의 질문과 답변만 모았어요!

안녕! 제주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질문과 답변
모먼트를 소개합니다.



질문1

Q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어서 더 어렵고 계속 고민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동기부여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추상적인 답변이라서 .. 봉사에 대한 경계를 깨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질문2

Q 환경 쓰레기가 줄어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나오는 쓰레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 쓰레기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 교육 및 환경 쓰레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Q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싶은데 7월이 되면서 요즘 날씨가 33도로 올라갈 정도로 매우 더워서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위험해질까 싶어서 쉽사리 야외봉사활동을 신청하기가 두렵습니다. 주로 야외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더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야외에서는 식수를 챙기거나 양산, 모자 등 열을 식히거나 햇빛을 막는 물품을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4

Q 치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저는 이번에 기억친구 리더 자원봉사를 신청했는데 이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A 치매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고 계시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요양병원 경험이 있긴 하지만 치매 환자들과는 또 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화이팅!

A 지역 내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 등에서 하고 있는 치매노인 대상의 프로그램별로 아마 봉사 내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질문5

Q 비대면 봉사의 효과가 어떤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전 비대면 봉사도 충분히 봉사로서 우리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이슈가 핫한 요즘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다른 분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천으로 가게 된다면 환경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A 코로나시국에 아예 봉사를 안 하는것보다 비대면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봅니다.

A 저도 비대면 봉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나아졌지만 근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봉사활동들이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육과 관련된 비대면 봉사가 아니라도, 실제로 내가 무슨 행동 등을 해서 횡수에 제한이 있는것이 아닌 환경정화, 질서유지, 피켓활동과 같은 활동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봉사 참여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6

Q 비대면 봉사로 무엇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A 선플달기 있어요. 약플예방 캠페인인데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A 기억에 남는 비대면 봉사는 복지관에서 준비했던 공연을 온라인으로 관람하고 심사위원이 되어 투표한 일이었어요! 그 외에도 줍깅, 재활용 챌린지들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것같아요.

A 1365에 들어가서 봉사신청 하실 때 온라인으로 선택하셔서 조회하시면 비대면 봉사 나와요.

질문7

Q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졸업요건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게 된 사례들을 보면서, 주기적으로 봉사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런 사이트처럼 좋은 교육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8

Q 봉사의 대상은 어디까지 한정 되어야 하나?

A 저도 봉사가 엄청난 것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천해보니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질문9

Q 아파트 승강기 내에 봉사활동과 관련된 포스터를 게시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A 아무래도 아파트 승강기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노약자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버튼을 잡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느낌으로 포스터를 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질문10

Q 신규봉사활동자에 대한 권고 교육시간은 없나요?

A 저와 같은 마음인것 같습니다 ㅜㅜ
여러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처음 경험해보는 봉사활동을 함께할 때에는 언제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ㅜ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교육이 시행된다면 더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질문11

Q 대부분의 일이 그러하듯 첫 발을 들이기가 가장 어려운거 같은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북돋아줄 방법이 있을까요?

- A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학교에서 일정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직접해보니까 봉사활동 후 느낄 수 있는 뿌듯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가끔씩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ㅎㅎ 맞아요! 첫 발을 들이기 참 어려운데,, 봉사시간을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의외로 봉사활동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봉사의 매력에 빠지게 해주는 것 같네요 !!
- A 대부분의 사람들이 봉사시간이나 스펙을 위해서 봉사에 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엔 봉사시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봉사활동을 계속 하다보니 남한테 도움을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어요!

질문12

Q 자원 봉사에 계속 참여하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 A 자원 봉사를 계속 참여하게 되는 원동력은 바로 봉사를 하면서 얻는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요?
뿌듯함이라든지, 깨달음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이요!



질문13

Q 일부 대학교에서 졸업 인증 조건으로 실시하는 봉사를 과연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사범대나 교직이수의 경우 졸업을 위해서 교육봉사 60시간을 해야하는데, 제 주위를 보면 진심을 다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 무조건 편하고 시간 많이 주는 곳을 찾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유의미한 봉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4

Q 처음 봉사활동을 지원하려고 할 때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피해끼치는 게 아닐까? 이럴 때에도 봉사하겠단 마음이 있다면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A 괜히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저 역시 너무 하고 있어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지원하고자 하시는 봉사활동에 대해 미리 알고 가면 두려움이 조금 해소되고 잘 해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15

Q 봉사를 하면서 문득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불안감이 덜쳐낼 수 있을까요?

A 봉사 대상이나 일감을 정성을 들어서 진심으로 하고 있다면, 불안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봉사를 한다면 잘 하는 것일 거예요.

질문16

Q 젊은층으로 갈수록 개인주의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낮아지고 있고, 종교인구 비율 또한 줄고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발성을 갖춘 자원봉사를 행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발적이고 일상화된 봉사활동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자원봉사가 실질적인 자발성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인증이나, 기타 다른 이점이 없이는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도 작성자님께서 아동보호시설 봉사를 하시면서 고민하고 반성하셨다는 것이 제게도 와닿는 바가 큼니다. 저도 앞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비록 대가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참된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고민하려고 합니다!



질문17

Q 자원봉사를 일상에서 쉽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A 자원봉사를 일상에서 쉽게 하려면 무엇보다 남을 돕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A 바닷가에 쓰레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더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질문18

Q 봉사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 A 성취감과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A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 A 저도 저번주에 바다에 놀러갔었는데 해변가 주변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찝찝했던 기억이 있네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올바르게 공공장소를 이용했으면 해요.

질문19

Q 어떤 자원봉사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요즘은 비대면봉사, 온라인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20

Q 다른 분들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언제가 가장 뿌듯했는지 궁금합니다.

- A 봉사를 다 마친 후, 어르신들이 웃어주시며 고맙다고 하셨을 때가 뿌듯했습니다.
- A 저의 경우에는 봉사대상자분들이 좋아하실 때가 제일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어요. 저희가 도와주던 그 날 하루만큼은 해맑게 놀고 즐거워하던 모습이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
- A 태풍이 지나갔을 때 거리 주변 쓰레기 및 피해 장소 치우는 봉사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치우면서 거리가 깨끗해져 갔을 때 보람찼다고 느꼈습니다.
- A 저도 요양원에서의 봉사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방 청소도 해드리고 할머니랑 말동무도 해드리고 산책도 시켜드리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 A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수학을 알려주는 봉사활동을 할 때, 다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었는데 재밌게 함께 공부하면서 잘 따라와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좋고 뿌듯했던 경험이 기억납니다. 교육 관련 봉사활동이 정말 재미있고 보람찬 것 같습니다.
- A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면서 요양원 시설의 청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마를 해드리며 말동무도 해드리면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쓸쓸해하시던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그 순간이 정말 보람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디오 클립에서 들었던 '보살펴주면 파릇하게 돌아나는 화초처럼 어르신들의 표정이 환하게 살아난다'는 부분이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질문21

Q 봉사를 하실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며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봉사를 할 때 다른 잡다한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그 봉사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고 모두 만족하면서 끝마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질문22

Q 자원봉사를 분명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봉사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저도 봉사를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질문23

Q 입시를 위해, 군대를 가기 위해, 취직을 하기 위해 우리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봉사라기보다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닌, 진정으로 남을 도우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A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내가 봉사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가치가 중요할텐데 말이지요. 봉사활동에 대해 오랜시간동안 시간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자리잡혀 있는 듯 한데요, 그럼에도 그 시간이 정말 많이 누적된다면, 그 또한 봉사활동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 어려운 분들이 필요할 때 도와드려야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보람도 느낍니다.


질문24

Q 다른 분들의 자원봉사 활동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저는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질문25

Q 최근 수해 피해 지역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학생인 제가 그분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A 수해 피해 지역에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배우고 싶습니다.

질문26

Q 자원봉사의 공익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도움의 절실함을 널리 알리고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를 함으로써, 배움과 뿌듯함을 통하여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라는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지역이 변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7

Q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A 10년 전 신입사원 시절, 반기에 1회씩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그 때는 전체 인원이 참가하라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 오전 시간에 이것을 왜 해야하는지도 몰랐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착했습니다.

첫 봉사활동이 추석 때였고 청소년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고 야외활동을 도와주는 봉사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3~4시간 투자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구나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기억합니다. 속 없이 송편 만든 너... 나에게 톡톡함을 안겨주었던 너... 잘 컸니?)

그 후로도 제가 조직변경될 때까지 꾸준히 참여하곤 했습니다.(봉사시간 인정은 안되어 있네요. 현재는 기록도 찾을 수 없고요.)







질문28

Q 봉사를 하며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 아동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첫 방문 날에 원장님과 1대1 면담을 했는데, 며칠만 하고 안 나올 사람이 아닌 최소한 몇달, 1년이상 같이할 사람을 구한다며, 그 이유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조금하다 그만두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봉사시간을 채우러 간 것이 맞았고, 거주지에서 한 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라 몇 달 동안 꾸준히 할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안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채우기roman 생각했던 자원봉사의 무게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 기업 인턴십 도중 지적장애인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러갔음에도 그곳에서 처음 느꼈던 분위기는 "경계심"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짧은 시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님께서 모든 봉사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장애인을 조롱하거나, 막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분들도

처음에는 일을 도와주려온 봉사자들을 밝고 경계없이 맞아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봉사자들의 예상치도 못한 몰상식한 행동들에 상처가 쌓여갔을 것이고, 이제는 찾아오는 봉사자들을 보면 반사적으로 경계부터 하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심고 오지 말았으면 합니다.

A 저의 봉사활동은 순수한 의미의 봉사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봉사시간을, 자기소개서를, 스펙을 위한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청소년 심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을 봐 주는, 흔하다면 흔한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찮음과 낯설음은 처음뿐이었고, 예상외의 열성과 끈기에 저도 모르게 열성적으로 설명해주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봉사활동이라는 말에 가려져 남을 위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지만 사실은 자원봉사자 개인에게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이야 말로 봉사활동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29

Q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어떤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나요?

A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장애인 요양시설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도와드리고 와야지 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갔기에 잘 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부터 식사안내, 화장실 동행, 말동무 되어드리기 등 처음 해보는 또 처음 느껴보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얼굴이 붉어졌던 것은 어르신께서 계속 제게 말을 거셨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대답해서 넘겼는데 그런 상태로 십분 가량은 대화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대화는 이어졌던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질문30

Q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1365나 vms같은 사이트 말고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은 1365, vms 외에도 헌혈을 하셔도 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민족복지재단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봉사 활동으로 많은 추억, 좋은 기억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질문31

Q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실수들을 하셨을까요? 이것만은 하면 안된다 하는... 후배 봉사활동 참여 선생님들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A 봉사활동을 하면 물론 힘들겠지만 그 힘들어 얼굴에 드러나는 건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도 이 봉사활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이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봐요. 또한 너무 힘든 감정에만 치우쳐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32

Q 자원봉사를 하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참여하는지, 봉사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보건소에서 접수를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일상생활속에서 느끼시는 불편함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접수할 때 쓰이는 키오스크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어려울 수 있고, 예방접종 접수의 경우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는 종이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께서 읽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 저는 노인 복지회관에서 연주를 하는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음악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음악을 들으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걸 생각하면서 설레게 연주를 준비했던 기억도 있고요!

A 저도 제 진로는 아니었지만 좋아하는 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던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봉사는 지루하고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됐던 것 같아요.

질문33

Q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더 있을지,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A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하는 것이면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도 되었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봉사인 것 같아 나중에 저도 꼭 해보고 싶네요:) 좋은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질문34

Q 코로나로 대면으로 만나기 어려운 만큼 봉사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것 같습니다. 원래 대면으로 봉사를 했던 기관들은 현재 어떻게 봉사를 이어가고있나요?

A 이전에 환자들을 위한 수세미를 직접 떠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비록 초등학교 때였고 주변의 권유로 따라갔지만 자원봉사자들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막상 일을 하니 뿌듯했습니다. 수세미 받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STORY

03

**나만의 내공을 담아
답변을 남겨주세요!**

답변 1개 당 1건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교육미션방
www.jejusi1365.or.kr



질문1

Q 작은 봉사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2

Q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외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을까요?
있다면 자세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질문3

Q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봉사는 어떤 활동일까요?



질문4

Q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정말 많겠지만 봉사했던 곳들 중에서 이곳은 정말 긴급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곳은 어디였나요?




질문5

Q 많은 자원봉사 중에서도 좀 더 빨리 인원 모집이 필요한 봉사가 있는데 그런 봉사를 강조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6

Q 자원봉사를 사회적인 베네핏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7

Q 가끔 봉사활동을 가면 무임금 노동자인양 봉사자들을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 봉사자로서 사명의식이 꺾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8

Q 봉사는 다른 활동들에 비해 강제성이 떨어지다보니, 책임감 없이 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질문9

Q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질문10

Q 기회가 된다면 노인 병동이나 경로당에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싶습니다. 미리 알고 가야 할 점들이나 노인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 하였을 때 힘든 점들이 궁금합니다.



질문11

Q 저는 보육원 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육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 또는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2

Q 복지관같은 봉사를 할 때에 그곳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신체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직접 여쭙어보는건 실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 #

KEY WORD
KEY WORD
KEY WORD
KEY WORD
KEY WORD
KEY WORD
KEY WORD

키워드를

모아보자

앞서 3가지 문항에 대한 사례와 답변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STORY 01

다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1부 봉사는 서프라이즈!

‘다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1부 봉사는 서프라이즈!’라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키워드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STORY 01

다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2부 슬기로운 봉사 생활

‘다른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2부 슬기로운 봉사 생활’라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키워드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사례집
+ 교육활동지

슬봉문답

발행일 2023년 1월

발행인 이승희

기획 서은경

자문 오승주(복지in연구소)

검토 황규순, 홍현이(스토리텔링 강사단)

발행처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전화 064-728-7520 팩스 064-756-2510

홈페이지 www.jejusi1365.or.kr

디자인 한그루 onetreebook.com

ISBN 979-11-972538-8-1 43330 비매품

